

생계 짊어진 청소년·청년 삶 살핀다

광주시·(재)광주사회서비스원
생활실태 파악 설문조사 착수
돌봄 정도·정책 욕구 등 파악
정책 사각지대 해소·지원 체계 마련

광주시와 (재)광주사회서비스원이 가족돌봄청
소년·청년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와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
년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선다고 밝
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들 중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돌봄(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을 제공하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광주시는 ‘광주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
례’에 따라 진행한다.

현재 광주시 가족돌봄청(소)년의 규모는 정확
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광주사회서비스
원은 설문조사에 앞서 광주 5개 자치구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기초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8월 한 달간 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내 공공·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도 가족돌봄청(소)년 사례발굴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가족돌봄청(소)년 중 설
문에 동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 정도,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한다.



광주시와 (재)광주사회서비스원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할머니를 돌보는 청년이 등장하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중 한장면. (tvN 'X'캡처)

조사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분석을 통해 정책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광주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연
구를 진행한다.

서비스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가족
돌봄청(소)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
갈 계획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은 “광주시 가족
돌봄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당사자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하라”

지리산지킴이연석회의 성명…“자연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냐”

지리산지킴이연석회의가 최근 성명을 내고 산
청군과 구례군이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방재정과 국립공원을 동시에 무너뜨
릴 사기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잠수 계획서를 철회하고, 환경부 장관은 지리산
훼손 사업을 반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리산은 지자체나 국가, 대통령, 환경
부 장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들의 집이다. 누
군가의 소유일 수 없고, 모두의 보금자리이자 지
구의 공유 공간”이라며 “구례군은 지리산이 구
례군의 것인 양 마음대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마
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같이 행동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지역의 뜻은 온전히 원형 그대로 보전
하여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런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단 4% 밖에 안 되며 공원
자연보전지구는 단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1%
도 훼손하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개탄
스럽다”고 전했다.

또 구례군에 대해 “성삼재 케이블카 탑승객 전
원을 전제로 한 경제성 분석은 허술하다. 적자 사
업에 군민 복지에 쓰여야 할 비용과 도로 폐쇄·복
원 비용까지 투입하겠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성삼재 전기버스 전환 합의를 군수가
일방적으로 거절해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카가 노약자·장애인의 자연 향유권을 보
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생태적인 주
거와 이동권이 일상에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케이블카는 무용지물”이라
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이번 폭우에도 지리산국립
공원 안에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산림을 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산사태, 지방재정 산사태의 기폭제다. 지리산케이
블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바로 선언해야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홀몸 어르신 안부 살피는 ‘우유배달’

광주 광산구, 매주 2~3회 문 앞에 우유 놓고 수취 여부로 확인

광주시 광산구가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우유배달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광산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홀로 사는 어
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문 앞에 우유를 두고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을 본격 운
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 협약을
맺은 광산구는 매주 2~3회, 혼자 사는 어르신 가정
을 방문해 전달 배달된 우유가 그대로 있으면 즉시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는 하남·수완·신창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매

주 84가구의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를 전달하고 있
다.

지난해 광산구는 15개 동에서 발굴된 홀몸 어르
신 57명의 안부를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
를 보다 체계화해 복지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유배달이 어르신들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
이 되고 있다”며 “고립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서구, 어르신 2429명 치매 예방 ‘조기 검진’

광주시 서구가 치매 걱정 없는 노후 생활 지원에
앞장선다.

서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집중검진대상자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상무2동, 금호1·2동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24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구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서구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인지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뇌 CT, 혈액검사 등) 등을 추가 실시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구는 우편, 문자·전화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치매
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치매 선별검
사와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올해 상반기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환자 79명을 조기 발견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 서구가 상무2동, 금호1·2동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검진대상자 치매조기검진’을 실
시한다. (광주시 서구 제공)

돌봄 이웃 91% “의류·영양식·난방비 필요”

광주 동구, 복지욕구 전수조사

광주시 동구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기본복지가
이드리안’의 정교한 운영을 위해 실시한 실험 기반
복지욕구 전수조사에서 계절 의류, 영양식, 난방비
등 생활밀착형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돌봄 이웃’ 5667가
구를 대상으로 복지욕구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5156가구가 응답하며 응답률 91%를 기록했다.

조사는 ▲기본생활 ▲혹서기·혹한기 ▲교육·문
화 ▲돌봄 등 4개 분야, 4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됐다.

응답 결과, 의생활 분야에서는 계절별 의상 2벌
이상 지원과 방한점퍼 지원에 절반 이상이 응답했
고, 식생활에서는 ‘2가지 이상 반찬 상시 구비’와

‘영양식 지원’이 60% 이상 선택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월세 등 주거비 지원
(49%), 혹서기 지원에서는 선풍기 등 여름용품
지원(49%), 혹한기 지원에서는 난방비 지원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3877가구)가 전체
의 68%를 차지했으며, 이 중 57%가 ‘고독사 예
방’ 항목에 응답했다. 노인 가구에서는 위기 상황
시 조력자 필요성이 27%로 나타나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동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8월 말까지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9월부터 욕구
기반 맞춤형 기본복지 사항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
침이다. 특히 민간 후원물품과 자원 연계 기준 마
련에도 반영해 중복지원을 줄이고 체감도를 높이
는 목표다.

/김진아 기자 jinggi@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